Switzerland Tourism.

스위스, 100 년만에 두 번째 국립공원 탄생하나.

아둘라(Adula) 공원, 2018 년에 탄생할 수도 있는 유력한 국립공원 후보

티치노(Ticino)와 그라우뷘덴(Graubünden) 사이에 위치
"스위스 알프스의 정통적인 예시"를 보여주는 공원
총 1,200km2 의 면적으로, 현 스위스 국립공원의 약 8 배
해발고도 2200m 위에 약 6km 에 걸쳐 뻗어난 알프스 툰드라 지형을 따라 하이킹 즐길 수 있어
반대 여론과 어떻게 소통해 나갈지 귀추 주목

유럽 최초로 '국립공원'을 유치한 스위스에는 2016 년 현재, 단 한개의 국립공원이 존재한다. 1914 년에 개장한 스위스 국립공원은 100 년이 넘도록 독보적인 존재였다. 하지만, 최근 스위스 내에서는 스위스가 100 년 동안 단 하나의 국립공원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 독일은 지난 15 년간 12 개의 국립공원을 양성하는 등, 유럽의 다른 나라에 비해 적극적이지 못했던 것을 만회하고자 '아둘라(Adula) 공원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아둘라 공원은 스위스의 남부에 위치한 티치노 주와 동부에 위치한 그라우뷘덴 주 사이에 자리잡고 있는데, 2018 년에 최종 결정이 될 국립 공원 후보가 되면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아둘라 국립공원 프로젝트는 최근 공청회를 비롯, 결정적인 단계를 모두 지나, 마지막 단계를 앞두고 있는데, 400 페이지에 달하는 문서에 미래의 공원의 목적과 역할에 대해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앞으로 지역 관계자들과 주민들에게 지지 및 허가를 받는 가장 어려운 단계를 거쳐야 한다. 17 개의 마을이 관계되어 있는데, 주민 투표도 치르게 된다. 투표에서 허가를 받는다 하더라도, 스위스 연방의 최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1 년의 시간이 더 필요하므로, 최소한 2018 년은 되어야 국립공원 오픈이 가능해 진다.

"스위스 알프스의 정통적인 예시"를 보여주는 식물과 동물이 바로 아둘라 공원을 국립공원으로 추진할 수 있게 한 이유다. 총 1,200km2 의 면적으로, 현재 엥가딘(Engadine) 지방에 있는 스위스 국립공원의 약 8 배에 해당한다. 가장 대표적인 풍경은 그레이나(Greina) 고원지대로, 해발고도 2200m 위에 약 6km 에 걸쳐 뻗어난 알프스 툰드라 지형을 따라 하이킹을 즐길 수 있다.

만일, 주민 투표 결과가 찬성일 경우, 매년 5 백만 2 천 스위스 프랑이 아둘라 공원 개발에 투자된다. 연방 정부가 예산의 60% 를, 티치노와 그라우뷘덴 주정부가 20%를 부담하고, 나머지 20%는 해당 자치구와 스폰서가 충당하는 방식이다. 이 예산으로 현지 교통망 개발 및 문화 및 역사 트레일 등의 개발도 함께 이루어진다. 실제로, 엥가딘에 위치한 스위스 국립공원을 연구한 결과에서 '투자 금액 매 1 스위스 프랑이 5 프랑의 매출을 올렸다'는 보고도 있다. 그러나, 개발을 한다 하더라도, 스위스의 공원 규제 법안에 따라 금지되는 것들이 무수히 많아진다. 자연 그대로를 보존하는데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 역시, 이 지역을 국립공원으로 개발하는 것 자체에 반대를 하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아무리 까다로운 스위스 공원 규제 법안이라 하더라도, 관광 자체가 불러 모으는 인파와 그에 의한 자연 훼손을 걱정하는 목소리이다. '지속가능한 관광(sustainable tourism)'을 추구하는 스위스가 이 문제를 어떻게 소통해 나갈지, 그리고 어떻게 두 번째 국립공원을 유치하고 개발해 나갈지 지켜볼만한 대목이다.

아둘라 공원: www.parcadula.ch
자료제공: 스위스 정부관광청 www.MySwitzerland.co.kr

Switzerland Tourism
13Fl.,Dongbu Dadong Bldg.,Da-Dong, Jung-Gu, Seoul, Rep.of Korea, Telephone +82 (0)2 3789 3200 Fax +82 2 3789 3255,
www.MySwitzerland.com It is our pleasure to help plan your holiday.